

기후부 장관, 전력망 반대 주민 직접 만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 건설 반대위 대표와 제2차 간담회 개최
- 반대위 의견 청취 및 전력망 건설의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등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국가 전력망 건설의 사회적 수용성 강화를 위해 전력망 건설 반대 주민대표와 직접 만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력망 건설 반대위원회 대표단과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10일 제1차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반대위가 한 자리에 모여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사업별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내실이 있게 운영하는 한편, 주민설명회 확대 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계획·건설 단계에서 의견수렴 폭을 확대하고 주민 지원·보상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여 의견수렴 범위를 넓히는 방안과 함께 송전망 경과지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지역 주민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력망 건설은 에너지 대전환 및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건설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간담회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3-5120)
		담당자	사무관	김일한 (044-203-5119)

1. 목 적

- 전력망 건설 반대위 의견 청취 및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논의

2. 개 요

- 일 시 : “26. 5. 8(금) 13:30 ~ 14:30
- 장 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2층 제2간담회의실)
- 참석자
 - 기후부(2) : 장관, 전력망정책관 등
 - 반대위(8) : 송전탑 반대 지역별 대표
 - 기 관(3) : 에너지공단 이사장, 한전 부사장·입지처장 등

3. 주요 내용

- 전력망 건설 관련 주민 수용성 강화 및 절차 개선방안 등 논의
- 반대위 의견청취 및 정부-한전-반대위 간 협의

4. 세부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3:30-13:35	(5')	기후부 모두말씀	기후부 장관
13:35-13:40	(5')	반대위측 모두말씀	반대위
13:40-13:47	(7')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강화 방안	기후부
13:47-13:52	(5')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한전
13:52-14:27	(35')	반대위 의견 청취 및 협의	
14:27-14:30	(3')	마무리 말씀	기후부 장관